

Ecoplus 대표가 전하는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동향

일찍부터 환경 관련 산업이 발달해 온 오스트리아는 지역별로 다수의 환경 산업 클러스터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. 그 중 니더외스터라이히에 소재한 Ecoplus는 주 정부 산하의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Business Agency 겸 산업 클러스터로서, 전통적으로 자동차, 플라스틱, 건축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움직임에 힘입어 E-Mobility, 친환경 건축 소재 및 냉난방 시스템, 에너지 절약형 주택(Passive House)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.

기관명 : Ecoplus, Niederösterreichs Wirtschaftsagentur GmbH

■ 주소 : Niederösterreichring 2, Haus A, A-3100 St. Pölten, Austria

■ 홈페이지 : www.ecoplus.at

■ 전화 : +43-2742 9000-19600

■ 팩스 : +43-2742 9000-19609

■ 이메일 : headoffice@ecoplus.at



Ecoplus 대표 Mr. Helmut Miernicki

Ecoplus를 간단히 소개하면?

Ecoplus는 오스트리아 동부 지방인 니더외스터라이히에 소재한 주 정부 산하의 Business Agency 겸 클러스터로 해당 지역의 투자 유치, 각 분야별 지역 소재 기업들의 효율적 네트워킹 및 마케팅, R&D 활동 지원, 학회 및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등을 통한 니더외스터라이히에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

1982년 니더외스터라이히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기관이었던 NOeRBS를 통합한 종합 기관의 형태로 탄생하였으며, 1997년 주 정부가 100% 출자한 정부 산하 기관이다. 2001년 현재 위치인 St. Pölten으로 이전하였으며, 2007년 루마니아에 처음으로 해외 사무실을 개설한 이후 체코, 슬로바키아, 헝가리, 폴란드 등 5개국에 해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.

6개의 산하 클러스터를 통해 500개 이상의 업체 및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116건인 가운데 55건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. 이 밖에 그 동안 개최된 66건의 관련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총 2,500명의 업체 및 학계 관계자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클러스터 현황은?

Ecoplus는 현재 산업 부문별로 6개의 관련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, 원조적인 자동차 관련 클러스터 Automotive Cluster Vienna Region을 비롯하여 Kunststoff Cluster(플라스틱/합성수지), Bau Energie Umwelt Cluster(환경/건축), Logistik Cluster(물류/운송), Lebensmittel Cluster(생활용품), Mechatronik Cluster(기계)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Ecoplus 소속 클러스터 현황

클러스터명	회원사 업체수(개)	회원사 종업원수(명)	회원사 매출액(백만유로)
Automotive Cluster Vienna Region(자동차)	122	34,698	4,607
Kunststoff Cluster(플라스틱/합성수지)	88	12,824	3,743
Bau Energie Umwelt Cluster(환경/건축)	185	9,647	3,516
Logistik Cluster(물류/운송)	56	22,863	6,082
Lebensmittel Cluster(생활용품)	52	7,907	2,328
Mechatronik Cluster(기계)	28	2,857	319

이 가운데 최근 전 세계적인 테마가 되고 있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움직임 등으로 인해,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형 소재, 효율적 냉/난방 시스템, 신재생 에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Bau Energie Umwelt Cluster가 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. 이 밖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 관련 제품 등 E-Mobility와 관련하여 Automotive Cluster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.

Bau Energie Umwelt Cluster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?

Ecoplus 산하 클러스터 중 최근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클러스터로 2007년 기존의 Holz Cluster(목재)와 Oekobau Cluster(에코 건축)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탄생하였다.

클러스터의 주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, ① 에너지 고효율 수준에 맞춘 오래된 건물/주택의 증/개축 ②에너지 절약형 주택(Passive House) 수준의 다층 건물/주택 보급 ③건물/주택의 쾌적한 실내 공간 창출 등이 그것으로 이들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R&D 활동 및 관련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. 특히 에너지 절약형 주택(Passive House)과 건물의 난방/단열 시스템 개선 부문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부문이다. 1999년부터 교통혁신기술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 프로젝트인 미래의 집(Haus der Zukunft) 프로젝트는 이미 오스트리아의 환경 관련 대표 프

Bau Energie Umwelt Cluster 로고



bau.energie.umwelt cluster
niederösterreich

interview

기획특집

정책동향

최신녹색기술

투zi동향

환경규제

주요인사

전시회르포

환경

포

로젝트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가운데 현재까지 250여 개의 관련 프로젝트에 총 2천 800만 유로가 지원되었다.

2008년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킨 미래의 집 플러스(Haus der Zukunft Plus)가 시행되고 있는데, 기존 프로그램이 에너지 '절약형' 주택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신규 프로그램은 에너지 '자립형' 주택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분야의 R&D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이 밖에 200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존 건물의 난방 및 단열 시스템 교체 보조금, 태양열 집열판 및 관련 설비 설치 보조금 등 정부 당국의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힘입어 Bau Energie Umwelt Cluster는 그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.

오스트리아 환경 산업 전망은?

오스트리아는 그 시장 규모면에서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인 것이 사실이지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폐기물 및 폐수 처리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환경 부문이 일찍부터 발전하여 왔다. 1990년대 후반부터 태양열 난방 및 온수, 에너지 절약형 주택(Passive House)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부문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, 최근에는 바이오 디젤, 바이오매스 등과 함께 그 동안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세를 보여 왔던 태양광 발전 및 열펌프 부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.

제 3차 Cluster Conference



최근에는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 Niki Berlakovich씨가 2020년까지 총 7억 6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현재 18만 5천명 수준인 소위 "녹색 일자리"를 3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.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의지 및 업체의 기술 개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오스트리아 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.

한국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?

중소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오스트리아 산업 구조 특성상 Ecoplus 회원사의 대부분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. 따라서 同 클러스터는 회원사들간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이외에, 중소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, R&D 및 해외 진출 지원, 각종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.

회원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Ecoplus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,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시장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. 특히 한국의 환경 부문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으로 인해 그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. 기술 협력, 현지 판매 파트너, Joint Venture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관련 분야 한국의 우수한 업체들과 협력할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. 

